

# 애국자의 대부대를 키운 위대한 품

공화국은 무엇으로 강인가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설명할 수 있었지만 여기서는 애국자에 대한 이야기로 이 나라의 강대함을 말하려고 한다.

지금도 사람들은 공화국창건 74돐을 뜻깊게 경축하던 그밤을 잊지 못하고 있다.

조국청사에 금문자로 아로 새겨진 력사의 그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국가의 부강발전에 공헌한 남다른 자량과 긍지를 안고 공화국창건 경축행사에 참가한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을 만나시고 축하격려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참가자들에게 우리 당과 정부는 어머니조국을 위하여 성실하게 바쳐가는 근로인민의 애국의 구슬땀과 순결한 량심을 천만금보다 더 귀중하게 여긴다고 하시면서 향유 권리의 권리보다 공민적의 의무에 놓고 나라의 큰 짐을 하나라도 덜기 위해 고심하고 분투하는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인민의 대표자, 참된 애국자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향유의 권리보다 공민적의

무를 앞에 놓는 사람들! 나라의 큰 짐을 하나라도 덜기 위해 고심하고 분투하는 사람들!

진정한 인민의 대표자, 참된 애국자!

지난 8월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대비상방역전의 승리에 공헌한 방역 및 보건부문 일군들과 과학자들을 만나시고 축하해주시는 뜻깊은 자리에서 그들을 우리 시대의 참된 애국자라고 높이 평가해주시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참된 애국자로 값높이 내세워준 사람들이 어찌 이들뿐이겠는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의것을 소중히 여기고 빛내이기 위해 애쓰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만나시어서도, 오랜 기간 군사복무를 하고도 몇년씩 제대를 미루어가며 복무의 자욱을 새겨 온 군인들을 만나시어서도 그들의 애국심을 소중하게 여겨주시며 참된 애국자로 영광의 단상에 내세워주시었다.

공화국의 그 어디를 가보아도 절세위인의 평도를 받들어 불리는 실상을 어머니조

국에 바치는 이런 애국자들이 찾아볼 수 있다.

그들중에는 인생의 로년기에도 수령의 애국유산을 지키는것보다 더 영예로운 순회길을 달려 수백만여m에 달하는 천을 짜고도 고마운 어머니당에 일로밖에 는 보답할것이 없어서 심중을 리놓는 직포공도 있다. 또한 나는 가도 초소는 남아있다고 생각하며 누구나 선뜻 서기 주저하는 혈치 않은 일터에 자기의 네 자식을 세울것을 결심한 어느한 위생시설수리공도 있고 한생을 천길막장에서 탄을 캐면서도 태양같이 환하신 원수님의 미소를 언제나 마음속에 안고 살기에 땅속에서도 어둠을 모른다 고 하는 평범한 탄부들도 있다.

세상을 둘러보면 어느 나라나 애국에 대해 나름대로 말한다. 허나 공화국인민들처럼 리

없이 깨끗한 량심과 성실한 범범에 가장 큰 행복의 무게를 실으며 맑은 일터에 한생을 묵묵히 바쳐가는 헌신적이며 애국적인 인민은 없다.

공화국인민이 지닌 애국심은 평온한 날보다 어려운 날, 조국앞에 시련이 닥쳐왔을 때 더욱 뚝뚝이 흐르는 열렬하고 순결한 마음이다.

돌이켜보면 랑색공화국이 처음으로 창공에 휘날린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강 70여년세월 얼마나 많고 많은 나라의 언덕들을 넘어 온 이 나라 인민인가.

새 조국건설, 조국해방전쟁, 전후복구건설, 사회주의 건설, 고난의 행군, 강행군... 이 나날 애국자의 자들의 국악무도반 반공화국대결소동을 짓부셔야 했고 련이어 걸처지는 자연재해도 이겨내야 했다. 최근년간에는 악성전염병으로 인한 방역전쟁까지 겪었다.

남들 같으면 얼얼변도 더 쓰러졌을 그야말로 증증첩첩의 시련과 난관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공화국은 단 한번의 동요와 주저, 답보

와 후퇴도 없이 오직 전진과 승리의 력사만을 아로새겨왔다.

그 나날 얼마나 많은 애국자들의 피와 땀이 이 땅을 적시었는가.

부강한 새 조국건설에 펼쳐 나설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나라에 애국미를 심참으로 바친 재령나무리벌의 김재원농민을 비롯한 애국농민들,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해 피뎠는 가슴으로 적의 화점을 막고 육탄이 되어 적방포를 맞받아 나간 유영무명의 용사들과 단 4문의 포로 적의 5만대군과 맞서싸운 열미도해안포병들, 전화의 불비속에서도 수령님만 계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굳은 신념을 안고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굴복없이 투쟁한 군자리와 락원의 로동계급, 전후복구건설시기 강재 1만만 더 있으면 나라가 허리를 펴수 있다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호소를 피뎠는 심장에 새겨안고 6만능력의 불피알연기에서 12만명의 강재를 뽑아낸 강선의 로동계급과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선구자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로동당시대의 대전성기를 펼친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영웅들과 혁신자들,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의 강재정신장조자들,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호소에 충성의 맹세로 화답하며 피폐복구전구들에 용아 달려나가 기적을 안아 온 최정예수도당원사단 전투원들...

이렇듯 자기보다 먼저 조국을 생각하면서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해 피와 땀을 아낌 없이 바쳐간 인민의 열화같은 애국열로 하여 공화국은 나날이 더욱 강해졌고 찬란한 미래를 신심드높이 앞당겨오고있는것이다.

이 땅에 차고넘치는 이러한 애국열은 어디서 솟아난 것인가.

사람들은 가슴뜨겁게 되새겨본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한평생을,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평등자로서, 혁명가로서,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온갖 고생과 시련을 다 이겨내시며 한생을 초물처럼 강그리 불태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실록을, 내 나라, 내 조국의 풀한포기, 나무 한그루까지도 다 자기 가슴에 품어안고 자기의 더운 피로 뜨겁게 덥혀주는 참다운 애국주의가 바로 김정일애국주의라고 그러도 절절히 말씀하시며 온 나라 인민들의 심장을 뜨거운 애국열로 끓여번지게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고를.

위대한 애국이 불타는 애국열로 충만된 인민을 키운다.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애국헌신은 이 나라의 천만아들 딸들을 가사보다 국사를 앞에 놓고 조국이 겪는 곤난을 열가지든 백가지든 함께 걸머지며 성실한 탐파 노력으로 나라를 굳건히 만드는 참된 애국자들로 키웠다. 특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모두가 김정일애국주의를 피뎠는 심장마다에 소중히 간직하고 사회주의조국의 통성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애국적의와 헌신성을 높이 받

취하도록 이끌어주고계신다. 하기에 이 땅의 천만인민은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애국충심으로 한생을 빛내일 열지로 심장의 피를 끓이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의 발걸음에 보폭을 따라세우자! 경애하는 그이의 평도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강국, 천하제일강국을 건설하는 길에 애국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자!

이것이 공화국인민들의 심장마다에 간직된 억척불변의 맹세이고 의지이다.

지금 공화국인민들은 누구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평도를 한마음한뜻으로 받드는 길에 가장 큰 영광과 행복이 있다는것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그이의 구상을 실현하는 길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가고 있다.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이 땅에 애국자의 대오가 나날이 늘어나고있다. 그 애국의 마음들이 밀부러가 되어 이 나라를 억척으로 떠받들고 있다.

김철민



## 탁월한 사상리론의 거장

### 새롭게 밝히신 강국평가의 기준

강국이라고 하면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있는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은 지금까지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나라들이 국제무대에서 대국이라 불리며 강권과 전횡을 일삼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강국에 대한 올바른 리해로 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과학기술이나 경제, 군사와 같이 특정한 분야의 위력을 높고서는 강국의 지위를 흔들 수 없기때문이다.

하다면 공화국이 내세우는 강국의 징표, 강국평가의 기준, 척도는 무엇인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가 리상하는 강국, 사회주의사회는 전체 인민이 먹고 입고 쓰고 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회, 누구나 서로 돕고 이끌면서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공산주의적미덕과 미풍이 발휘되는 인민의 사회이라고 밝혀주시었다.

그이의 이 가르치심에는 강국인가 아닌가를 하는것을 그 나라 인민들이 얼마나 무탈하여 편안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여야 한다는 소중한 뜻이 담겨져있다.

지구상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존재하고있다. 이 나라들은 모두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더우기 사회적부를 창조하고 발전시켜나가는데서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 군사대국, 경제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을 보면 길은 화려하고 번쩍거리지만 그속을 들여다 보면 사회를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는 각종 병폐, 해소될수 없는 대립과 모순이 날로 격화되어 통째로 흔들리고 사람들이 마음편히 살지 못하고있다.

이것은 국가와 사회가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인민들이 정신육체적으로 쇠퇴한 나라는 강국이라고 말할수 없으며 또 강국으로 될수 없다는것을 말해준다.

나라의 근본은 인민대중이다. 인민이 있어 국가도 존재하고 사회가 발전해가는것이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의 가장 귀중한 존재인 인민대중이 어떻게 살며 행복을 누려가는가가 제일 중요한 문제로 나신다. 강국의 기준도 마땅히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논해야 한다. 이렇게 높고 볼 때 전체 인민이 먹고 입고 쓰고살 걱정을 모르며 무탈하여 편안하고 화목하게 살아가

는 사회, 누구나 서로 돕고 이끌면서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인민의 사회가 진정한 강국인것이다.

오늘 공화국에서 건설해가는 사회주의강국은 바로 이런 사회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을 하늘로 내세우시고 인민들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고계신다. 하나의 로선과 정책을 내놓으시여도 인민의 안녕을 지키고 행복을 꽃피우는데로 지향시켜나간다.

세계를 휩쓰는 악성전염병으로부터 인민의 생명안전을 지켜주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취해주시신 조치에 의하여 공화국의 인민들은 세계보건사가 알지 못하는 기적을 창조한 영웅인민으로 될수 있었다. 또 지난 10여년간에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류경치과병원, 옥류야동병원, 묘향산의료기구공장, 보건산소공장 등을 비롯하여 인민들의 건강장전을 이바지하는 전문병원들과 공장들이 수없이 일떠서 사람들을 누구나가 사회주의무상치료제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며 건강한 몸으로 사회주의건설에 매진하고있다.

누구나 생기와 활력에 넘쳐

생활하는 공화국인민들에게 행복의 새 보금자리라는 또 얼마나 많은 한해에 하나의 거리가 일떠섰다고 할 정도로 인민들이 살게 될 행복의 보금자리들이 도처에 일떠섰다.

창천거리, 은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거리, 미미과학자거리, 려명거리, 삼지연시, 자연재해지역들에 솟아난 사회주의선경마을들...

이렇게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늘어나는 행복의 별천지들에 인민은 삶의 보금자리를 뒀다.

거기에 마시링크리장,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양덕은천문화휴양지, 풍라인민유원지, 통일거리운동센터 등 현대적이면서도 문화적인 봉사기지가 일떠서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은 더욱 윤택해졌다.

그뿐이 아니다. 서로 돕고 이끌어주고 위해주는 미풍이 공화국의 국풍으로 되어 온 나라가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었다.

신문과 방송으로 자주 전해지는 《치녀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영예군인의 안해가 된 치녀의 기특한 소행에 대한 소식, 부모없는 소년, 소녀들의 친부모, 친형제가 되어 위해주고 돌봐주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공화국의 참모습을 보여준다.

이 모든것은 사회주의강국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고 이 땅 위에 세계가 알지 못하는 인민의 천하제일락원을 일떠세워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사상리론과 현명한 령도가 안아 온 고귀한 결실이다.

이 세상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우리 인민에게 하루빨리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안겨줄수 있는 실제적인 변화, 실질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인민의 리상사회를 앞당겨주시려는 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진정 국가사업과 활동의 첫자리에 인민을 놓으시고 철두철미 나라의 근본인 인민의 웃음을 지키고 더 활짝 꽃피우기 위한데로 일관시켜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공화국은 현상이 알지 못하는 사회주의강국으로 확신성있게 나아가고있는것이다.

백광철

## 위민현신의 발걸음

자연깊은 철사다리

주제108(2019)년 5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금야강2호발전소를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거연히 서있는 언제를 한동안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금야강2호발전소엔제를 정밀발전소저수지에 많은 물이 차있는것을 보니 기분이 대단히 좋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었다.

이날 발전소운영실대를 하나 하나 료해하시던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언제에 올라가실 의향을 표시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시다가 철사다리가 있다고 하시면서 저쪽을 바라보시라고 하시었다.

인민들은 당황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 철사다리로 말하면 발전소 근무성원들이 언제와 수문의 상래, 수위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순찰할 때 리용하는것이였다.

슬없이 오르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이날 언제에 오르시여 인민생활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르며 일군들은 그이의 헌신의 자욱에 발걸음을 따라세우며 인민을 위한 열사복무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 불타는 맹세를 다지고 또 다지였다.

이른새벽에 찾으신 건설장

몇해전 3월 어느날 이른새벽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려명거리 건설장을 찾으시었다.

인민들에게 문명한 새 거리를 하루빨리 안겨주고싶은 마음이 얼마나 불같이있으면 사람들이 아직 단잠에 들어있는 시간에 이곳을 찾으시였으리라는 생각에 일군들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날 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료색건축기술이 도입된 려명거리가 볼수록 장관이라고, 비행기를 타고 내려다보면 더 멋있을것

이라고 말씀하시었다.

려명거리를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장조물, 사회주의문명이 옹축된 거리로 훌륭히 일떠세우시려고 수심속에 걸쳐 무려 1390여건의 형성안을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창녕 이 땅에 인민의 행복이 한껏 넘치는 사회주의강국을 기어이 앞당겨오실 억척불변의 의지를 안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끝없이 이어가시는 위민현신의 길에서 인민의 기쁨 나날이 커가고 아름다운 꿈과 리상이 활짝 꽃피어나고있다.

본시기자

## 사랑앓아 지어주신 이름들

명명해 주신 이름에는 애비가장군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우리 인민에게 이 세상만복을 안겨주시려는 그이의 응지가 뜨겁게 어려여있었다.

본시기자 리경월

몸소 지어주신 꽃이름-만복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제101(2012)년 9월 어느날 능력확장된 평양화초연구소를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중전에 비하여 연구소의 화초생산능력이 20배로 늘어났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며 화초순실들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한 호동에서 심비디움(당시)을 전문적으로 재배하고있는 정형을 보고 받으시었다.

그 화초에는 참으로 잊지 못할 사연이 깃들어있었다.

주제100(2011)년 3월 평양화초연구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로 육종한 심비디움의 이름을 꽃이름 다음에 달아주시었다는 사랑의 약속을 남기시었다.

그후 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사

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온갖 지성을 다하여 수많은 꽃을 활짝 피워놓고 경애하는 원수님께 삼가 이름을 지어주실것을 보고드리었던것이다.

추억깊은 사연을 더듬으시며 사진으로 포기마다 활짝 핀 이 꽃들을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꽃이 정말 곱다고 하시면서 몸소 꽃의 이름을 《만복화》라고 지어주시었다.

평양화초연구소를 찾으신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심비디움은 꽃이 피어있는 기간이 그중 오랜 꽃이라고 하시면서 화초는 이렇게 꽃이 피어있는 기간이 오랜것을 많이 재배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만복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